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Real Time Economics 금리 인상 전망 from today's early morning
- WSJ: 엘런 장관, “미 다른 은행들도 예금 보호할 수 있어”

[미국 금융]

- WSJ: SVB 붕괴 이후 8조 모기지 저당시장에 불안 심리
- The economist: 미 은행들, 수천억불을 놓치고 있다
- CNBC: JPMorgan, 벤처투자자 지원 위해 신생기업용 플랫폼 매입

[뉴저지]

- NorthJersey: 버켄카운티 오래된 집·토지 기록 쉽게 볼수 있다

[국제 물류]

- Bloomberg: 글로벌 무역 시스템 디지털화 에 적극 나서는 기업 없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팬데믹 후 출장가면 할일 더 많다
- WSJ: 호텔업계, 인력 확보 위해 경력 개발 지원 제공
- WSJ: 직원과 상사, AI도구에 대한 상반된 입장
- WSJ: 구글, ChatGPT 대항마 Bard AI 챗봇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연준, 금리 0.25% 인상... 은행사태로 향후 인상 중단 가능성

- 연준 관리들은 오늘 수요일,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0.5% 인상했다. 그러나 2주전까지 예상된 계속적인 금리 인상 행렬이 은행시스템 혼란 사태 때문에 더 빨리 종료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 연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9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해 현재 벤치마켓 연방 금리는 0.475%~5% 수준이다.
- 이번 성명서에서는 지금까지 썼던 ‘계속적인 인상’이란 문구가 삭제됐다.
- 이날 발표된 정책 설명서는 “최근의 은행 스트레스가 경제를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 최근 상황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여파의 정도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

WSJ Real Time Economics

- 오늘 목요일 2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향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그 이후인 오후 2:30분에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다.

- 관전 포인트는, 물가 통제 위해 다시 금리를 올린 건가 아니면 2008년 이래 최대 은행 위기 상황속에서 금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 **금리 올릴 경우:** 은행 사태 이전에 연준은 0.25%냐, 아니면 0.5%냐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경우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금리 그대로 할 경우:** 은행 혼란은 현 금융 환경에서 더 타이트한 상황의 리스트가 될 것이라는 것.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Jan Hatzius는 연준이 리스트 관리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가 주장하는 근거는, 긴축을 하지 않을 경우가 긴축을 많이 해서 (금리를 더 올려서) 보다 문제 해소가 더 쉬울 것이라는 입장.
- **포워드 가이드:** 향후 주목되는 것은 연준이 어떻게 경기 전망이 바뀌는지, 경기 전망을 둘러싼 리스크가 어떻게 변할지, 특히 연준은 향후 가장 가능성이 큰 경로가 어떻게 될지 설명하는 것이 오늘 금리 폭만큼 중요하다. 즉, 오늘 금리 폭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중요하다.
- 향후 전망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정책 성명서, 금리 향후 경로, 연준의 기자회견.

WSJ: Yellen Says U.S. Could Move to Protect Deposits at Other Banks **옐런 장관, “미 다른 은행들도 예금 보호할 수 있어”**

- 재닛 옐런 연방재무장관은 어제 화요일 말했다. 규제 당국이 은행 시스템에서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다른 은행들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 즉, 이같은 언급은 필요할 경우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는 미국내 은행 시스템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대응으로 보인다. 재무부와 연방규제기관들은 SVB와 Signature 은행의 미보증 예금을 보증하기 위해 긴급권한을 사용했으며 은행들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청을 수용토록 새로운 연준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Anxiety Strikes \$8 Trillion Mortgage-Debt Market After SVB Collapse **SVB 붕괴 이후 8조 모기지 저당시장에 불안 심리**

- 한마디로 투자자들은 다른 은행들이 주택저장증권을 매각하게 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미 국채시장 만큼 안전하다고 알려진 8조 달러 규모의 채권 시장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 이른바 ‘대행사 모기지 채권’(agency mortgage bond)은 연방정부가 소유한 대출기관인 Fannie Mae 및 Freddie Mac의 모기지 대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및 채권 펀드에서 널리 가지고 있다. 채권은 대부분의 부채보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훨씬 적고 신속하게 매매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SVB은행이 설립되고 전에 채권이 가장 큰 투자였던 것이다.
- 러나 모든 장기 채권 처럼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은 금리 상승에 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가격이 하락했고 SVB SIVB와 같은 은행들은 미실현 손실로 타격을 받았다. FDIC가 이 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즉, 채권이 수개월내에 매각되어 가뜩이나 약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WSJ 기사

The economist: America's banks are miss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미 은행들, 수천억불을 놓치고 있다

- 지난 1년 동안 커머셜 은행의 자금은 5천억 달러 감소하여 거의 3% 감소했다. 이는 은행이 예금을 상환하기 위해 스스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이 돈은 어디로 가나?
- 그 답은 단기적인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에 자금을 투자하는 저위험 투자 수단인 머니마켓 펀드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펀드는 SVB d은행이 실패하면서 지난 주에 1천2백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 그런데, 머니마켓 펀드가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을 빼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2013년에 도입된 연방 준비 은행의 ‘역레포 제도’이다. 10년 후, 은행에 커다란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참고 바랍니다.

The economist 기사

CNBC: JPMorgan Chase buys data platform for startups in push to serve venture capital investors

JPMorgan, 벤처투자자 지원 위해 신생기업용 플랫폼 매입

- 이 회사 이름은Aumni. 데이터 분석 제공회사다.
- 자산면에서 가장 큰 미국은행은 유타주에 소재한 5년된 회사를 매입했다. 벤처자본 투자자들의 그들의 은행간에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높기 위한 목적이다.
- 거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Pitchbook에 따르면 Aumni 기업가치는 2억3천2백만달러로 알려졌다.

CNBC 기사

[뉴저지]

NorthJersey: Ten years later, Bergen clerk's effort to digitize records dating to 1800s is nearly done**버겐카운티 오래된 집·토지 기록 쉽게 볼수 있다**

- 약 10년간의 노력 끝에 1800년대부터의 버겐 카운티 모든 토지 기록 문서와 담보 대출 서류가 디지털 복구되어 올해 여름부터 온라인 접근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카운티 관계자는 문서 규모는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며, 현재 개인 정보 확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이제 버겐 카운티 주민들은 법적 문제 등에 문서가 필요할 때 오래된 문서에서 특정 인물이나 가족의 행적을 찾는 등의 일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NorthJersey 기사

[국제 물류]

Bloomberg: In the Race to Digitize Trade, No One Wants to Be First**글로벌 무역 시스템 디지털화 에 적극 나서는 기업 없다**

- 팬데믹 시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국경 폐쇄, 공급망 혼란을 겪으면서 국경 간 거래를 비롯한 시스템 전체를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은 다국적 무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규제를 내놓고 있다.
-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기업의 거의 절반이 각국의 새로운 디지털 무역 요구 사항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디지털화를 선두에서 시도하는 “first mover”가 될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적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서 나서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무역 시스템이 디지털화될 경우 전체 무역 비용이 6% 줄어들고 연간 1조 달러의 글로벌 무역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ork Travel Is Suddenly a Lot More Work**팬데믹 후 출장가면 할일 더 많다**

- 출장에 대한 엄격한 원칙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되는 상황이다.
- 코로나 19가 악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되어 항공권 가격이 올랐다. 이 때문에 회사는 한 번의 출장으로 직원들이 더 많은 미팅을 잡도록 하고 있고, 하루만 출장가는 직원들의 수도 줄이고 있다.
- 더욱이 '항공권 구매 전 수동 관리자의 승인 필요', '코로나와 관련된 항공료 할인을 위한 신청 자격 증명' 등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출장 원칙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원들은 출장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출장 정책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직원들을 경쟁자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출장 중역들은 말한다.

WSJ 기사

WSJ: Short-Staffed Hotels Offer Career Growth to Hire Workers 호텔업계, 인력 확보 위해 경력 개발 지원 제공

- 최근 호텔 업계의 고용이 늘고,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직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사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호텔들이 늘고 있다.
- 온라인 채용 플랫폼 Wizehire에 따르면 최근 채용 공고에 경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 호텔의 비중이 2%에서 8%대로 늘어났다. 호텔들이 동일한 인력 풀을 공유하는 원격 일자리나 패스트푸드 체인 및 배달 업체와 경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Hilton, Hospitality Ventures Management Group, McNeill Investment Group과 같은 글로벌 호텔 기업들 역시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호텔 관리자 심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WSJ 기사

Despite Office Bans, Some Workers Still Want to Use ChatGPT 직원과 상사, AI도구에 대한 상반된 입장

-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직장에서 AI 도구 사용에 있어 고심하고 있다.
- 회사는 개인 정보 보호와 영업 비밀에 대한 우려로 외부 플랫폼을 금지했다.
- 그러나 직원들은 기본적인 리소스를 얻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할 뿐이라며,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다.

WSJ 기사

WSJ: Google Launches Bard AI Chatbot to Counter ChatGPT

구글, ChatGPT 대항마 Bard AI 챗봇 출시

- 구글이 수년간의 개발 끝에 이번주 화요일 새로운 자체 AI 챗봇 "Bard"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Bard는 아직 정식 제품이 아닌 실험 단계에 있어,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bard.google.com에서 접근할 수 있다.
- ChatGPT의 대항마로 발표된 구글의 Bard는 위키피디아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며, 대화 적용을 위한 언어 모델(LaMDA, 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s)을 기반으로 하여 대화 형식의 문답이 가능하다.
- 한편 구글은 Bard와 같은 AI 도구를 검색 엔진에 접목하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색 광고 사업에 대한 우려로 AI 발표를 미루던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ChatGPT와의 싸움에 뛰어들면서 테크 업계의 AI 경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물가나 금융안정이나' 고민 속 0.25%p 금리 인상 전망"

"파월 재임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일각에선 금리 동결·인하 기대"

최근 미국 중소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아 금융 시스템 불안이 부각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온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이번 달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발표하고,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점도표) 등 경기 전망도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가 활발히 생겨나는 등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온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최종적인 금리 수준과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

